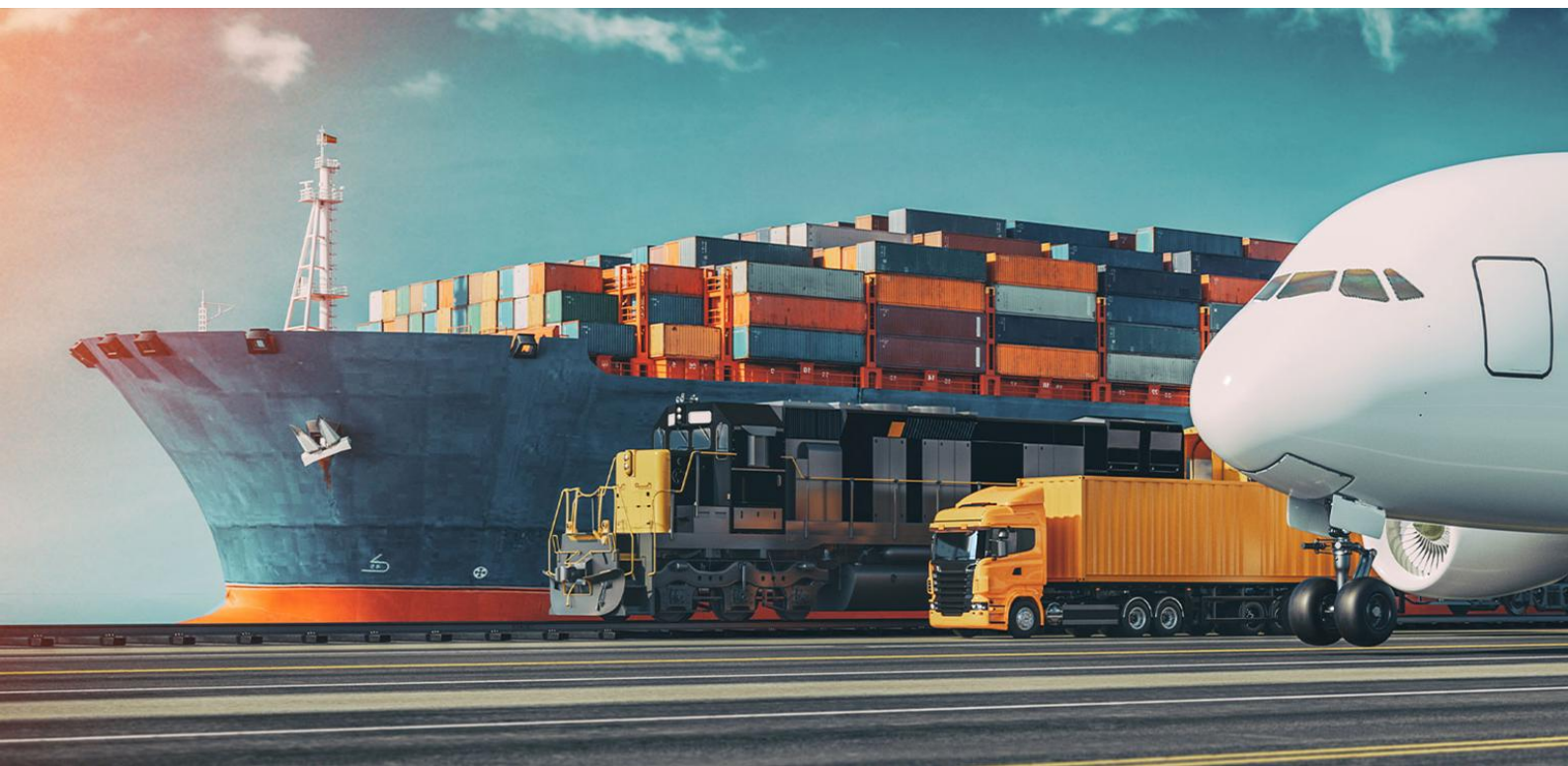


MAX LOGISTICS NEWSLETTER



2025년 12월호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 KJ, OZ 스케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WS/UA/DL등)구간의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KJ587	2330/0120+1 1610/1800 2330/0120+1	D2 D5 D7	DIRECT
	OZ222	0900/0900	DAILY	DIRECT
	DL158 DL196	0935/0840 2005/1330	DAILY	DTW T/S SEA-LAX T/S
YYZ / YVR	WS081	0850/1120 0725/0950 1510/1750	D2 제외 DAILY	NRT-YYC T/S
LAX	KJ284/KJ286 KJ282	2330/1850	DAILY	DIRECT
	OZ202	1240/0650	DAILY	DIRECT
	DL172	1940/1615	DAILY	SLC T/S
SFO	OZ212	2050/1400	D13456	DIRECT
	DL172	1940/1615	DAILY	SLC T/S
SEA	OZ272	2100/1455	D12467	DIRECT
DFW	KJ244 / KJ242	2300/0335+1 0940/1405 1000/1425	D1 D37 D5	DIRECT
	DL170 DL158 DL172	1840/1655 1015/1025 1940/1615	DAILY	MSP-ATL T/S DTW T/S SLC T/S, 연결 D257
ORD	KJ244 KJ242/KJ248	0200/0155 2300/2255 0940/0925 2300/2255 1000/0945 0800/0755	D1 D1 D37 D3 D5 D6	DIRECT
	DL158 DL170	1015/1025 1840/1655	DAILY	DTW T/S MSP T/S
ATL	KJ248	0200/0705 2300/0405 0800/1305	D1 D3 D6	DIRECT
	DL188 DL026 DL170	1625/1710 1850/1935 1840/1655	DAILY	DIRECT DIRECT MSP T/S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KJ284/KJ286 KJ282	2330/1830	D123456 D7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매니저 (070-5069-9441) 조대호 매니저 (070-5096-9342)	
	OZ202	1245/0800	DAILY	DIRECT	전일 17시		
	YP101	1320/0720	DAILY	DIRECT	전일 17시		
	UA806	1245/0620	DAILY	SFO T/S (TRUCKING)			
SFO	OZ212	2050/1530	DAILY	DIRECT	당일 15시		
	DL196	2005/1430	DAILY	SEA T/S			
ORD	KJ244 KJ242 KJ248	2300/2255 0800/0745 2300/2255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강준환 매니저 (070-5096-9869) 왕유진 매니저 (070-5096-9886)	
	DL158	0935/0840		DAILY	DTW T/S		전일 17시
ATL	KJ248	2300/0405+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188	1750/1725	DAILY	DIRECT	당일 오전		
DFW	KJ244 KJ242	2300/0335+1 0800/1225	D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026	1925/1850	DAILY	ATL T/S	당일 오전		
	JFK	KJ587	2230/0020+1	D2	DIRECT		작업일 17시
OZ222		0940/1055	DAILY	DIRECT	전일 18시		
DL196		2005/1430	DAILY	SEA-LAX T/S	당일 15시		
YYZ/YVR	WS087	2045/1610	D146	YYC T/S	전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 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US 향 주요 PAX 항공사 선적 진행으로 인한 주요 직항 및 T/S 노선 개발 중 (OZ, WS 집중 판매중)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JFK	OZ222	A350	Daily	09:40-10:55	전날 17:00	11, AUG~
	ICN-LAX	OZ202	A350	Daily	14:40-10:20	전날 17:00	01, SEP~
DL	ICN-SLC	DL 172	A350-900	Daily	19:40-16:15	당일 13:40	13. JUN~
	ICN-DTW	DL 158	A350-900	Daily	09:35-08:40	전날 17:00	
	ICN-ATL	DL 188	A350-900	Daily	17:50-17:25	당일 12:00	
	ICN-ATL	DL 026	A350-900	Daily	19:25-19:05	당일 13:00	
	ICN-MSP	DL 170	A350-900	Daily	19:30-16:50	당일 13:00	
	ICN-SEA	DL 196	A350-900	Daily	20:05-13:30	당일 14:00	
UA	ICN-SFO	UA 892	B777	Daily	18:00-11:35	당일 12:00	
		UA 806	B787	Daily	11:30-06:15	전날 17:00	
YP	ICN-LAX	YP 101	B787-9	Daily	12:45-08:20	전날 17:00	
	ICN-LAX	YP 103	B787-9	D1,3,5,7	22:05-17:20	당일 14:00	
	ICN-EWR	YP 131	B787-9	Daily	21:30-22:30	당일 14:00	
	ICN-SFO	YP 111	B787-9	D1,3,5,6,7	18:20-13:00	당일 12:00	
	ICN-HNL	YP 151	B787-9	D1,3,5,6	22:10-11:50	당일 14:00	2, JUL~
AC	ICN-YUL	AC 068	B787-8	D2,3,5,7	18:00-18:50	당일 12:00	
	ICN-YYZ	AC 062	B787-9	Daily	18:20-11:20	당일 12:00	
	ICN-YVR	AC 064	B787-9	Daily	16:55-09:55	당일 12:00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 KJ, OZ 스케줄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지원
- FRA/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및 LHR/STN의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하여 OZ 및 OAL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KJ795/KJ775 KJ793	22:30-10:00+1 22:00-11:05+1	화 금 / 수 토 목 일	DIRECT
LHR	FRTR	KJ793	22:30-22:00+1	목 일	STN T/S
VIE	FRTR	KJ795/ KJZ775 / KJ789 / KJ797	23:00-06:30+1 23:00-06:30+1	화 금 수 토 / 목 일	DIRECT
MXP	FRTR	KJ789KJZ797	22:30-10:05+1 22:30-10:05+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OAL	QR	QR8985 QR8981	0135-0610 0155/0610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3	02:25-08:45 00:55-07:15	금 일 월	FRA T/S *T/TIME: 2~4DAYS
	TK	TK6545 TK0091 TK6545	14:55-20:25 23:20-04:50+1 11:25-17:40	목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153 CV9015 CV7156	04:00-12:35 03:15-17:25 04:00-12:35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7111 C8 7113	05:20-17:20 12:25-00:25+1	월 수	ICN-MXP *T/TIME: 2~4DAYS
	WS	WS087	20:45-15:51	월 목 토	ICN-YYC *T/TIME: 2~4DAYS
	SK	SK988	23:45-05:25+1	월 수 금 토	ICN-CPH *T/TIME: 3~4DAYS
	OZ	OZ511	11:50- 19:10	화 목 금 토 일	ICN-BCN *T/TIME: 1DAY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FRA	FRTR KJ795/KJ775 KJ793	22:30-10:00+1 22:00-11:05+1	화 금 / 수 토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박주상 수석 (070-5096-9385) 임진슬 매니저 (070-5096-0003) 이성빈 매니저 (070-5096-9341)
LHR	FRTR KJ793	22:30-22:00+1	목 일	STN T/S	작업일 17시	
VIE	FRTR KJ795 KJ775 / KJ789 KJ797	23:00-06:30+1 23:00-06:30+1	화 금 수 토 /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MXP	FRTR KJ789 KJ797	23:00-10:10+1 23:00-10:10+1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메일 : europe@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BCN	OZ511	A359	D2,4,5,6,7	11:15-17:50	전날 17:00	01, SEP~
	ICN-IST	OZ551	B772	D2,4,5,6	09:35-15:45	전날 17:00	01, NOV~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 HKG 화물 별 특가 제공 및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연말 스페이스 지원 가능
- KJ, OZ PVG 및 HKG 그리고 HAN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 KJ, OZ 직항 이외 OAL 주요 운항 노선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이원 구간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TPE	OZ711	B772 등	Daily	08:00-09:50	전날 17:00	01, SEP~
		OZ713	A333	Daily	13:40-15:45	전날 17:00	
	ICN-BKK	OZ741	A359	Daily	18:05-22:00	당일 12:00	
	ICN-CGK	OZ761	A359 등	Daily	15:40-21:00	전날 17:00	
	ICN-MNL	OZ701	A333	Daily	07:35-10:35+1	전날 17:00	
		OZ703	B772	Daily	19:20-22:30+1	당일 12:00	
	ICN-SYD	OZ601	A388	Daily	20:00-08:20+1	당일 12:00	
	ICN-KIX	OZ112	B773	Daily	06:45-08:40	전날 17:00	
		OZ114	A333 등	Daily	16:05-18:05	당일 12:00	
	ICN-PVG	OZ 361	A333	Daily	09:05-10:05	전날 17:00	
		OZ363	B772 등	Daily	10:50-11:55	전날 17:00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KJ0987 KJ0947 KJ0957 KJ0937	월 1250-1405 화 0050-0205 / 0115-0230 수 0050-0205 / 0115-0230 목 0050-0205 / 1340-1455 금 1050-1205 토,일 0115-0230	DAILY	DIRECT
	OZ0361 OZ0363	0900-1005 1045-1145		
HKG	KJ973/971(73F)	2310-0200+1	DAILY	DIRECT
	KJ967,969(74F)	1050-1340	D2~7	DIRECT
HAN	KJ513,515 (73F)	2320-0150+1	DAILY	DIRECT
	KJ387,933,951,389(74F)	0040-0310	DAILY	DIRECT
NRT/KIX	NRT / KJ0194, KJ0198 KIX / KJ0192, KJ0182	NRT 수,목,금,토,일 1540-1820 화 1040-1320 KIX 화-일 1630-1825	D2-D7	DIRECT
	KIX OZ0112 OZ0114 OZ0118	0755-0940 1405-1550 토 제외 1605-1750	DAILY	DIRECT
TPE	OZ711 OZ713	1015-1150 1420-1550	DAILY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KJ0987 KJ0947	일자별 상이 0050-0205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곽지연 매니저 (070-5096-0004)
HKG	OZ745	DAILY / 1925-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김정은 매니저 (070-5096-9384) 한효정 매니저 (070-5096-9366) 윤현빈 매니저 (070-5096-9893)
	OZ967/OZ969	화,수,토,일 / 일자별 상이	화,수,토,일	DIRECT		
	OZ951/OZ953	화,수,토 / 2345-0735+1	화,수,토	HAN병합노선		
HAN	OZ733	DAILY /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NRT	KJ0194 KJ0198	화 1040-1320 수-일 1540-1820	화-일	DIRECT	전일 17시	지민정 매니저 (070-5096-9340)
TPE	OZ711 OZ713	DAILY 1015-1150 1420-1550	DAILY	DIRECT	전일 17시	김지희 매니저 (070-5096-9470)



HONG KONG, CHINA

홍콩 지점소식

2025년 12월 휴일 안내

- 12월 25일 Christmas Day
- 12월 26일 The first weekday after Christmas Day

물류 동향

항공

Hong Kong Air Cargo 2026년 Charter Slot 운항 일정 공개 및 대리점 모집

- 2026년 전세기 운항 일정 및 대리점 모집

주요 전세기 노선 :

Route	Frequency
HKG-BUD	Every D1, 4, 6
HKG-LGG	Every D5, 7
HKG-STN	Every D2, 3, 7
HKG-RUH	Two Flights per Week
HKG-KWI	Two Flights per Week
HKG-BAH	Two Flights per Week
HKG-Any Other Destinations	Two Flights per Week

DHL 익스프레스, 홍콩-말레이시아 간 항공 화물 수송량 확대

- DHL 익스프레스는 홍콩-말레이시아 페낭 노선의 반도체 제조업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버스 A321을 대형 화물기로 교체.
- 기존 에어버스 A321을 대체하기 위해 보잉 767 화물기가 투입되며, 이는 DHL 익스프레스의 극동 지역 네트워크인 홍콩-말레이시아 노선 편당 20톤의 화물 수송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북부 제조 허브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긴급 화물 운송 수요 증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독일 물류 기업인 DHL은 3분기 항공 화물 물동량이 44만 4천 톤으로, 2024년 3분기 44만 5천 톤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ONG KONG, CHINA

물류 동향

항공

Hong Kong Air Cargo East Midlands Airport (EMA) charter service 시작

- 홍콩에어카고(HKAC)는 A3302-200F 를 전세기로 운용해서 EMA 운행 시작
- 이스트 미들랜즈 공항(EMA)이 허브공항으로 출시 한지 7개월만에 EMA에서 운항을 시작한 7번째 화물 항공사이며 나머지 6개 항공사는 센트럴 항공, 아틀라스 에어, 에티오피아 카고, 사우디아 카고, 에티하드 카고, SF 익스프레스 입니다.
- HKAC는 유럽으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럽 지역의 전자상거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2월, 이 항공사는 글래스고 프레스윅(PIK) 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작년 10월에는 버밍엄(BHX) 노선을 개설해서 운항 중



Hong Kong Air Cargo's first flight into EMA

Hong Kong Express Airways HKG-TAE(대구) 증편

- HK Express는 12월20일 부터 HKG-TAE(대구) 기존 주 3회 (월/수/금) 에서 주7회로 Daily 운항 예정
- 현재 홍콩-인천 노선은 주31회, 홍콩-부산 노선은 주10회, 홍콩-제주 노선은 주12회 운항중이며 Bulk 화물 운송 중

TOKYO, JAPAN

도쿄 지점소식

2025년 11월 휴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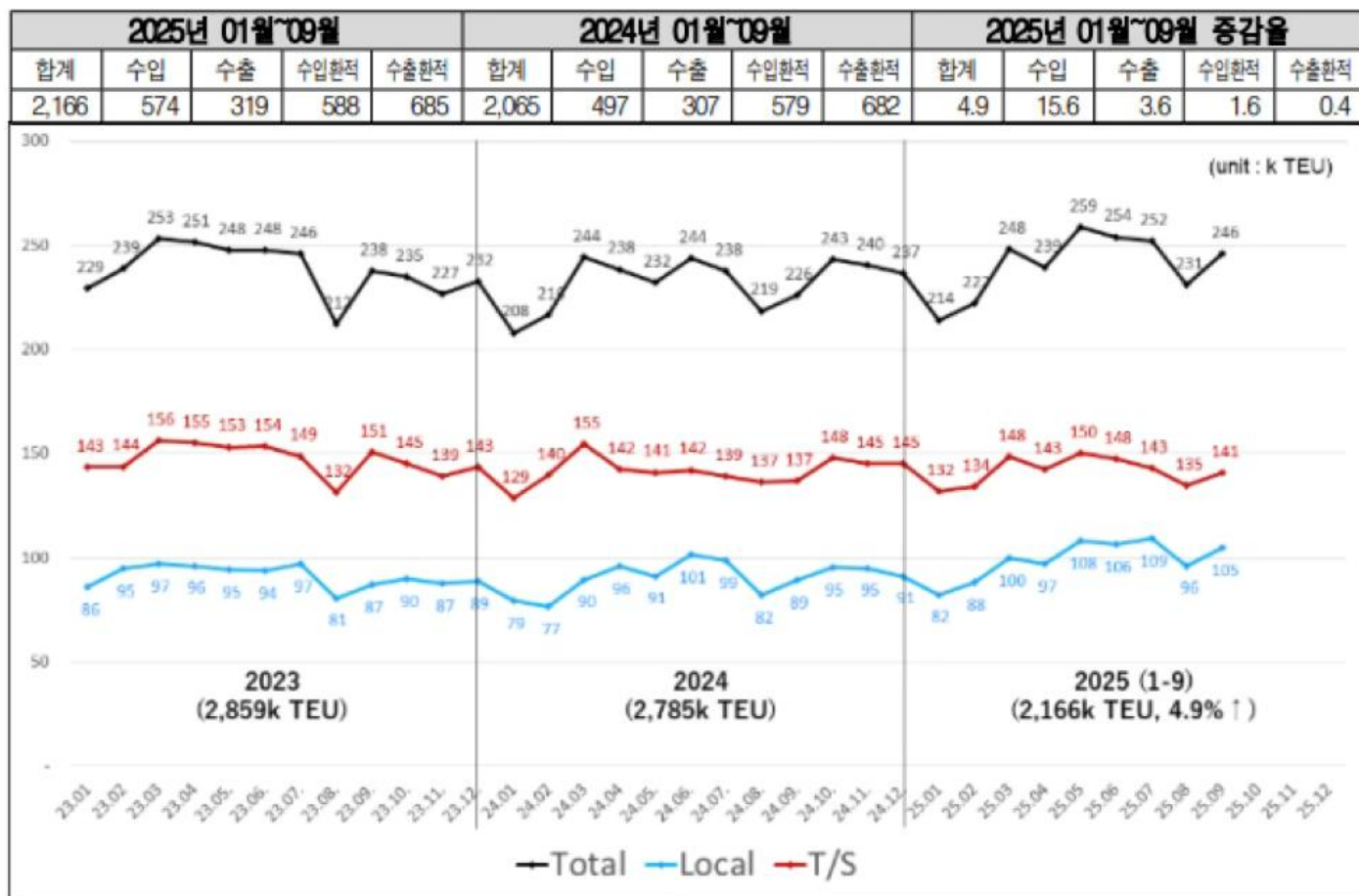
- 12월 27일(토) ~ 2026년 1월 4일(일) : 연말 연시 휴무

물류 동향

해상

부산-일본 물동량: 2,166천TEU 처리 (4.9% ↑)

- 수출입 893천TEU (11.0% ↑)
- 환적 1,273천TEU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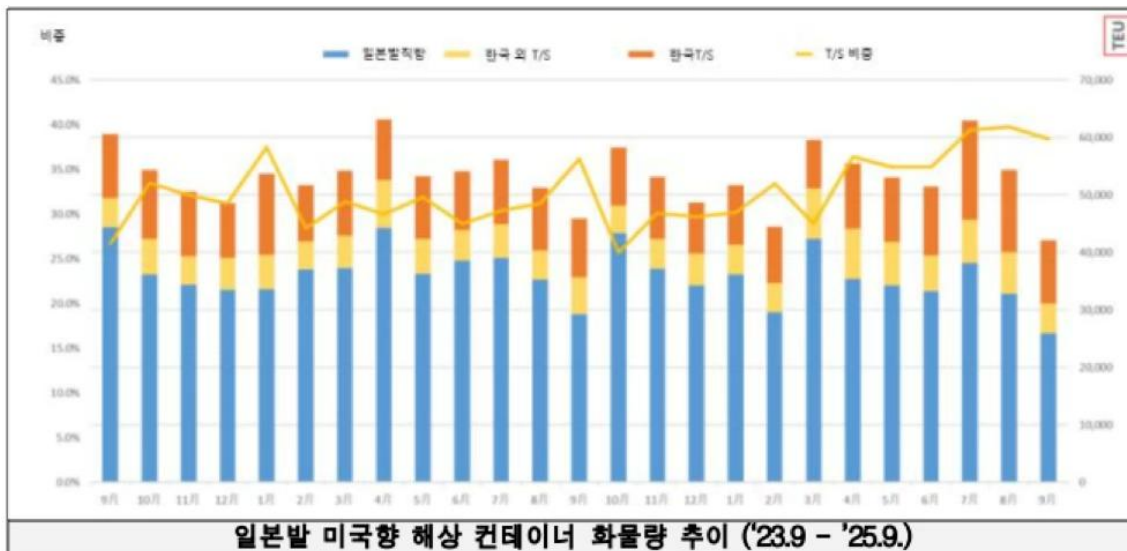
TOKYO, JAPAN

물류 동향

9월 일본발 미국향 물동량 8.3% 감소, 미국의관세정책 영향심화

9월 일본발 미국향 화물량은 42,111TEU로, 전년 대비 8.3% 감소,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꺾이며 급격히 둔화되었음

- 전월 대비로 보면 8월이 13.5%, 9월이 22.6% 감소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임
- 4만 2천 TEU대로 내려간 것은 2021년 12월(42,047TEU) 이후 처음으로,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SCM 혼란, 임시결항, 공'컨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바 있음



9월 일본 주요항만 중 직항분이 증가한 항만은 요코하마와 오사카항이며, 나머지 도쿄, 고베, 나고야는 모두 감소함

- 요코하마항은 관세정책에 따른 화물감소를 예상해 운항을 중단했던 CMA의 북미동안 노선이 재개되면서, 환적에서 직항으로 복귀한 화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누계로는 오사카항이 30% 증가한 반면 도쿄·요코하마는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

순위	일본발 선적항	9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대비 (%)	비중 (%)	1~9월	전년동월 대비(%)	비중 (%)
1	도쿄	9,967	▲12.9	▲20.4	38.1	120,927	▲10.8	39.1
2	나고야	7,890	▲9.0	▲25.0	30.1	92,988	▲3.3	30.1
3	고베	4,719	▲20.3	▲26.8	18.0	65,080	▲3.0	21.1
4	요코하마	2,452	6.9	25.6	9.4	19,364	▲17.9	6.3
5	오사카	351	19.0	▲29.2	1.3	3,200	29.4	1.0
6	시미즈	275	▲5.5	▲28.8	1.1	3,012	8.2	1.0
6항 합계		25,654	▲11.3	▲20.6	98.0	304,551	▲7.0	98.6
기타항만		528	▲2.6	▲1.9	2.0	4,473	5.8	1.4
일본발 모선 직항분 합계		26,182	▲11.1	▲20.3	100.0	309,024	▲6.9	100.0

TOKYO, JAPAN

물류 동향

한편 9월 일본발 미국향 화물의 부산 환적의 경우, 나고야, 하카타, 오사카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도쿄 항은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 화물 감소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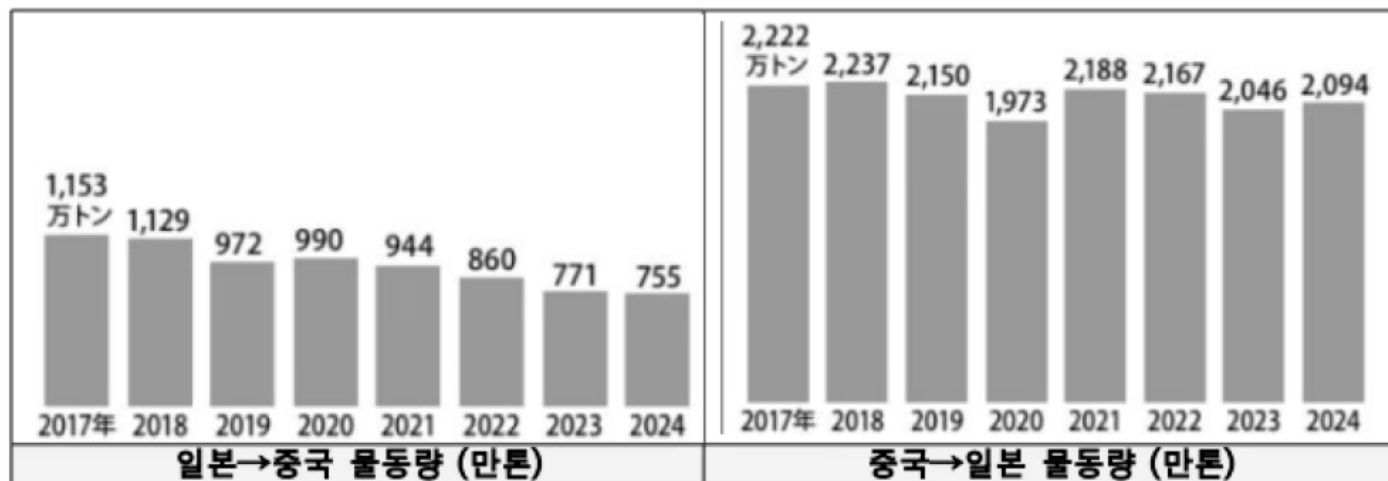
– 오사카항·하카타항의 부산항 환적 증가는 미국 동안향 화물 증가에 따른 결과임

순위	항만	9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대비 (%)	비중 (%)	1~9월	전년동월 대비(%)	비중 (%)
1	나고야	1,876	20.5	▲15.7	17.2	16,142	42.0	15.3
2	고베	1,856	2.6	▲8.3	17.0	16,666	▲10.6	15.8
3	하카타	1,266	61.9	▲34.3	11.6	12,570	6.0	11.9
4	오사카	1,002	72.8	▲43.5	9.2	10,596	37.1	10.0
5	도쿄	994	▲36.5	▲27.2	9.1	12,466	▲5.6	11.8
6	요코하마	994	5.1	▲27.1	9.1	10,408	7.4	9.9
7	시미즈	478	1.7	▲30.2	4.4	4,414	▲12.4	4.2
6항 합계		8,466	9.8	▲25.5	77.5	83,262	7.4	78.8
기타항만		2,455	0.6	▲17.7	22.5	22,373	4.6	21.2
일본발 한국환적 합계		10,921	7.6	▲23.9	100.0	105,635	6.8	100.0

일중 간 컨테이너화물 감소지속

한편 9월 일본발 미국향 화물의 부산 환적의 경우, 나고야, 하카타, 오사카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도쿄 항은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 화물 감소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임

– 오사카항·하카타항의 부산항 환적 증가는 미국 동안향 화물 증가에 따른 결과임



TOKYO, JAPAN

물류 동향

이러한 일본의 대중수출 감소는 장기화된 중국 경기침체에 더해,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거점의 동남아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차이나 플러스 원' 움직임이 팬데믹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차이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흐름이 강화되었음

또한 일본의 대중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재활용 관련 품목의 감소도 화물 이동량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적됨

- 대중 수출 품목 중에서는 '플라스틱 및 그 제품'과 '목재 펄프·폐지·판지 등'이 양대 품목으로, 전성기에는 이 두 품목이 전체 수출량의 40~50% 이상을 차지하였음
- 그러나 중국의 수입 규제 강화로 수출량이 크게 줄며, 중국향 화물 이동에 큰 타격을 주었음
- 다만 규제 강화 이후에도 일정물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관련 품목이 전체의 20% 이상, 폐지 관련 품목이 10% 이상을 차지함

* 두 품목을 합하면 여전히 대중 수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구성

** 이 밖에 기계류, 구리, 철강 등이 주요 대중수출 품목으로, 이 세 품목과 위의 두 가지 재활용 관련 품목을 합치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함

일중 항로 화물은 올 1-7월 기준 1.0% 감소를 기록 중이며, 중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 향후 수출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TOKYO, JAPAN

물류 동향

항공

한일간 항공·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증가

- 일본과 한국은 전자상거래, 반도체, 자동차, 신선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아시아 항공 화물 성장을 주도
- 양국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글로벌 소비 증가로 항공 화물 수요가 급증하며, 일본의 항공 화물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에서 2032년 288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구체적 증가 요인

- 엔저로 인해 해외직구(특히 한국/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 수입 e-Commerce 급증.
- 인구 고령화로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
- 지방(지방창고 부족) 수요가 많아 항공 D2D(door-to-door)가 더 선호됨.
- K-뷰티, K-패션, K-푸드, K-POP의 인기로 인한 판매 급증

공급망 불확실성, 해운 지연, 항만 혼잡에 대한 보험으로 항공 선택 증가

-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항만 혼잡, 해상운임 변동성 등이 지속되면서, 신뢰성과 속도가 중요한 기업들은 “해상 + 항공 혼합 복합 운송(multimodal)” 혹은 ‘항공 우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항공화물 포워딩 업체 및 통합 물류 제공자들이 디지털 가시성(real-time tracking), 위험 화물 및 특수 화물 취급 역량을 강화하면서, 항공 화물의 서비스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이로 인해 수요자가 항공을 더 신뢰하게 됨

아시아 내 화물 운송 시장 규모 및 점유율

Intra-Asia Freight Forwarding Market

Market Size in USD Billion

CAGR 4.93%



시장 개요

스터디 기간 2019 - 2030

추정 기준 연도 2024

예측 데이터 기간 2025 - 2030

시장 규모 (2025년) 189억 7천만 달러

시장 규모 (2030년) 241억 3천만 달러

성장률 (2025 - 2030) 연평균 4.93%

시장 집중 낮다

TOKYO, JAPAN

물류 동향

항공

아시아 내 화물 운송 동향 및 시장 분석

- 운송 수단별로 해상 화물은 2024년 아시아 내 화물 운송 시장의 56%를 차지했으며, 항공 화물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으로 4.50%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최종 사용자 기준으로 제조업 및 자동차 부문은 2024년 아시아 내 화물 운송 시장의 29%를 차지했으며; 유통 무역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50%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무역로별로는 중국-베트남 회랑이 2024년 가치의 13.50%를 차지했으며, 중국-일본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가장 높은 4.1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성장률 전망에 미치는 영향 %	지리적 중요성	영향 연대표
아시아 내 전자상거래 거래량 급증	+1.2%	핵심 APAC, 동남아시아로의 확산	중기 기간(2-4년)
RCEP 자유화	+0.8%	RCEP 회원국, 중국-아세안 회랑	장기 (≥ 4년)
중국 + 1 제조업 이동	+1.0%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중기 기간(2-4년)
지역 항만 인프라 확장	+0.7%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장기 (≥ 4년)
다구간 통합 허브	+0.5%	싱가포르, 홍콩	단기 (≤ 2년)
온도 조절 제약 거래의 증가	+0.6%	일본, 한국, 호주	중기 기간(2-4년)

SINGAPORE

싱가포르 지점소식

2025년 12월 휴일 안내

- 12월 25일(목)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

항공 : 여객기 콘솔 서비스 + 화물기 서비스

- Route : SIN → ICN
- OZ 여객기 DAILY CONSOL SERVICE 운영
- KJ 화물기 장비, 벌크 화물 전문 서비스 운영

Flight No.	ETD	ETA	Frequency	Route	Remark
OZ752 (PAX)	22:50	06:40	Daily	DIR	- GCR Only - Height Limit: 160cm
KJ (FRT)	11:20	18:50	2, 4, 7	DIR	- 장비, 벌크 화물

물류 동향

싱가포르 물류 현황 요약

- 지리적 이점 + 인프라 확장 → 안정적 성장
- 연말 성수기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 항공·해상 수요 증가

항공(AIR)

- 연말 성수기 영향으로 미주·유럽항 운임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창이 공항 화물 터미널 작업량 증가로 특정 시간대 터미널 핸드링 리드타임이 기존 대비 길어짐

해상(OCEAN)

- 연말 수요 증가로 아시아-유럽 항로 운임이 소폭 상승
- 전략적 입지, 시설 확장 등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환적 허브 역할을 유지 중
- 다만, 최근 환적 항만의 혼잡(congestion) 및 40HQ 장비와 스페이스(space) 부족 현상 일부 발생

SINGAPORE

물류동향

통관 및 규제

- 싱가포르 세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으나, 민감 품목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
- Permit 발급 시 부정확한 HS code 사용의 사유로 반려 빈도 증가
- CO(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관련 서류 또는 제조 정보 추가 요청 사례 증가

특이사항

- 2026년 싱가포르 정부의 물류 핵심 전략 → "스마트 물류"와 "친환경 전환"
-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친환경·스마트 물류를 도입해 글로벌 물류 허브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 하고자 함.
- 물류 전반적으로 스마트 항만 시스템, 디지털 벙커링(3-BDN) 등 자동화, 무서류 기반 운영 시스템 표준화 확대
- 항공 부문에서는 2026년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연료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사용이 의무화 되며, 이로 인하여 항공사에서 SAF surcharge 부과 예정
- 해상 부문에서는 MSGI(Maritime Singapore Green Initiative) 제도 적용으로 저탄소 연료 사용 선박과 고효율 선박에 인센티브/감면 혜택 강화 예정
-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기업과 물류업체의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양측 모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와 전략적 대처 필요함





2025년 12월호



HO CHI MINH, VIETNAM

호치민 지점소식

- 특이 사항 없음

경제 동향 및 전망

항공

- 아시아나 여객기 10월말부터 아시아나11월말까지 NARROW BODY, 당분간 CARGO 서비스 중단
- 대한 항공/아시아나/베트남 에어등 한베간 항공운임 큰 변동 없음
- 호치민발 한국 및 제 3세계착 항공운임 또한 큰 변동 없음

해상

- 호치민 PORT CONGESTION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대략 3 ~ 5일정도 DELAY 지속
- 계속적인 태풍의 영향 및 홍수로 인하여 DELAY 지속 예상
- 운임은 호치민발 한국착 및 미주착 등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음



HO CHI MINH, VIETNAM

경제 동향 및 전망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 베트남 친환경 컨테이너항만 투자 검토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A.P.Moller - Maersk)가 베트남에 대형 컨테이너 항만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센트 클레르크(Vincent Clerc) 머스크 CEO는 최근 하노이에서 가진 토 램(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동에서 이러한 투자 의사를 타진했다.

클레르크 CEO는 “베트남은 국제 무역 규모 상위 20개국 중 하나이자 동시에 동남아 및 전 세계에서 당사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며 “우리는 베트남에 대규모 현대적 친환경 컨테이너 항만과 전략적 물류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 중으로, 이를 통해 베트남의 수출입 증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기후 변화 적응,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트남 정부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램 서기장은 “베트남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항만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머스크와 같은 해양 경제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류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의 투자는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추세에 따라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1971년 덴마크와 수교 이후 2013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2023년에는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BANGKOK, THAILAND

방콕 지점소식

2025년 12월 휴일 안내

- 12월 5일(금) : 아버지의 날 (전 국왕(라마 9세)의 탄생일)
- 12월 10일(수) : 제헌절

물류 동향

항공

2026년 1월부터, 1,500바트(\$45) 이하의 저가 수입품의 대한 10% 관세 부과

- 주요 원인 : 현지 중소기업(SME) 보호, 중국산 저가품 유입 억제
- 전자상거래 플랫폼·물류업체는 세금 징수·통관 절차 강화 필요
- 소비자 해외직구 가격이 관세 10%로 상승할 전망
- 이에 따라, 정식 태국 식약청(FDA) 허가를 받는 브랜드사 & 업체들이 늘어날 전망

* 관세·VAT + 통관 비용 증가 증가로 인한 태국 내 정식 FDA 등록 및 유통이 효율적

세부 고려사항

- 행정 리스크 : 새로운 관세 징수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이나 비용 초과가 발생 예상
- 소비자 불만 : 해외 직구 문화가 강한 소비자층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매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air market reviews & updates

중국산 저가품 가격 상승 → 한국 제품 경쟁력 상승

- 태국 소비자는 가격대비 품질이 더 높은 한국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 높음
- 한국 브랜드의 수요가 더욱 증가됨에 따라 선적 물동량 또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태국 SME 보호 강화 → 한국 기업의 B2B 진출 기회 확대

- 태국 내 제조업 강화의 경우 한국기업의 부품, 원자재 등 공급수요 늘어날 전망
- 태국 내 해외직구는 감소가 예상되으나, 정식 수입/ 현지 유통 및 3PL 상승 예상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해상(수출)

Thailand - EU FTA (ASEAN Briefing) 체결 목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

- 투자 증대 효과: 관세 인하 + 비관세 장벽 완화로 태국 수출업체의 EU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EU의 태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경제성장 효과: 연구에 따르면 이 FTA로 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1.2% 추가 상승할 가능성 있음
- 이 협정은 투자 유치, 새로운 시장 등 다양한 물류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세부 고려사항

- 태국 기업은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SPS, 유기농, HACCP 등)를 충족해야 함
-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지속가능성 기준에 맞춰 태국 기업들이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함

태국 펫푸드 시장 : 기회

- 태국이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펫푸드(애완동물 사료) 수출국이 됨
- 올해 수출액은 약 31억 달러, 작년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 협정은 투자 유치, 새로운 시장 등 다양한 물류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 태국이 EU FTA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면, 한국 기업이 태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EU 시장을 겨냥한 수출 허브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해짐
- 태국의 물류·투자 환경 개선에 따라 한국 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비용 절감 가능
- 태국-EU, ASEAN-한국, 한국-태국 FTA를 적절히 조합해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 대체 루트 및 다변화된 공급망으로 글로벌 무역 리스크 최소화
- 예시) 태국 → 한국 기준 “Mixed Feed” 품목 수출의 경우 C/O 대비 RCEP 발행 시 수입관세 3% 인하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해상(수입)

태국-한국 경제 파트너십 협상

태국과 한국이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경제파트너십협정(일종의 FTA)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함

- 한국-태국은 기존에 참여 중인 ASEAN-한국 FTA, RCEP을 기반으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구상
- 한국 기업의 태국 내 EV(전기차)·배터리, 반도체, AI, 디지털 콘텐츠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함
- 한국의 중공업, 전기차, IT 쪽 기업이 태국 내 투자 확대 → 생산 및 수출 허브로 태국 활용 가능

Bangkok, Laem Chabang 항만 Phase 3 개발로 세계적 수준 포트 목표

- 목표 처리량: 컨테이너 1,100만 → 1,800만 TEU, 차량 200만 → 300만 대
- 프로젝트 항목: 해상 매립, 항만 건물/도로/유틸리티, 철도 연계, 화물 처리 장비 및 IT 시스템 구축
- 자동화 +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세부 고려사항

- 디지털·자동화 시스템 안정성: 초기 운영 적응 기간 존재, 트럭·선사 시스템 연계 검토 필요
- 디지털 가시성 강화: 선사·포워더·화주 간 물류 투명성 증가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 한국 기업이 ASEAN 물류 허브 활용 가능성 기대
- 선박, 트럭, 창고 등 각 단계별 시스템 통합 지원 및 최적화 방안 제공
- 11월까지 램차방 포트 혼잡으로 터미널 정체시간이 증가하면서 포트 내 대기가 길어졌고, 그 영향으로 운송비가 평균 15~20% 상승한 상황. 전반적으로 시스템 안정화와 목표 처리량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사회/경제

Laos-태국 국경 무역 및 우편업무 협력 확대

- 2025년 11월 현재, 태국과 라오스 간 양국 무역이 8.8 % 증가해 약 240 억 바트(≈7.4 억 USD) 규모에 도달
- 라오스 내 전자상거래(e-commerce)의 빠른 성장과 함께, China-Laos High-Speed Railway 등을 통한 국경 통관·물류 동선이 원활해진 덕분이라는 분석
- 특히, 태국의 우체국 기관인 Thailand Post 이 국경물류·전자상거래 연계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음

Anutin Charnvirakul 내각과 운송·인프라 투자 집중

- 태국 새 내각에서 운송부문이 향후 4개월간 인프라투자의 핵심 축으로 지정됐다는 보도
- 물류 인프라(도로·철도·항만 등)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물류업계 및 창고시장 변화

- 중국에서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며, 태국 물류창고 시장은 2025-27년간 연평균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임
- 도심형 단기창고, e-commerce 특화 물류시설의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결론

태국 내 물류비용 저감, 효율성 제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신사업의 창출 기회가 높아지는 시기. 또한, 수출주도의 산업이 강화됨에 따라 태국 내 물류센터·보관창고 수요 증가 가능성이 또한 매우 높음. 한국발 태국행 수출입 또는 태국→한국/동남아 수출입 물류사업을 기획한다면, 창고·풀필먼트센터 확보 및 운송망 구축이 중요한 전략 포인트로 사료됨

PENANG, MALAYSIA

페낭 지점소식

- 2025년 12월 25일 국경일 : 성탄절

바운드별 스케줄

11월 말 KE Schedule

Temporary & Changeable

출발지	도착지	화				수				목			
		8월26일				8월27일				8월28일			
PEN	ICN	14:30	21:45	74Y	Freighter	8:20	18:40	77X	Freighter	12:40	19:40	77X	Freighter
KUL	ICN	23:20	07:05+1	333	Passenger	8:55	16:15	74Y	Freight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출발지	도착지	금				토				일			
		8월29일				8월30일				8월31일			
PEN	ICN	14:30	21:45	74Y	Freighter	10:15	17:20	74Y	Freighter	10:50	18:05	77X	Freighter
KUL	ICN	8:15	18:45	77X	Freight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 PEN-ICN 구간: 기존 주5회에서 6월달부터 주 6회 증편이후 변동없이 지속
- 11월 17일부로 KE 페낭 새 지점장 부임 (신용석 부장)
- KUL-ICN 구간: 기존 여객기 Daily, 화물기 주 2회로 변동없이 지속 중

PENANG, MALAYSIA

물류 동향

IAG, 런던서 말레이시아항공 화물 조업 개시

- IAG카고가 영국 런던공항(LHR)에서 말레이시아항공 화물부문에 대한 항공화물 조업 서비스를 본결 제공
- 이같은 항공화물 조업협력은 말레이시아 항공이 런던노선을 하루2편 운항하기 시작하면서 기반구축

KUL허브 ‘애센트 에어웨이즈’ 본격 운항

- 말레이시아 KUL를 허브로 한 ‘애센트 에어웨이즈 말레이시아 (Ascend Airways Malaysia)가 최근 항공운항증명 (AOC)를 받고 본격 운항 예정
- 이 항공사는 아일랜드 전세편(ACMI)전문 운영업체인 ‘아비아 솔루션 그룹 (Avia Solutions Group)의 자회사이며, ‘B737-800SF’를 주력으로 동남아노선 확대 계획

M-JETS항공, KL-BOM 주2편 화물노선 개설

- 말레이시아 KUL를 허브로 한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인 MJETS 항공이 10월부터 인도 뭄바이(BOM)노선을 주2편 운항 시작
- 운항기재는 B737-800화물기로 인도향 항공화물 총판매 대리점에 ‘멘테이즈 에어카고’를 선정
- 이 항공사는 현재 방글라데시 다카, 치타공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태국, 베트남 등 운항중

경제 동향

링깃 강세지속 전망 – 안정적 성장과 금리 격차 축소

- 말레이시아 링깃은 13개월만에 최고치 (USD 1.00 = RM 4.17)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누적상승률은 약7%로 아시아 통화중 최고 수준
- 경제학자들은 2026년말 USD 1.00 = RM 4.10까지 추가 강세를 예상하며, 재정건정성, 내수건조, 미국 연준과의 금리격차 축소를 배경으로 분석
- 환율안정은 한국기업의 현지원가 관리에 긍정적이지만, 수출형 제조기업은 환헤지 전략 필요

반도체 산업 지속 성장 – 글로벌 테스트,패키징 허브 도약

- 2025년 말레이시아 반도체 시장규모는 약 USD 108억, 2030년 160억으로 성장 예상
- 미국향 반도체 칩 수출은 24년 USD 162억불 수준으로 전체수출의 13% 차지. 글로벌 OSAT(후공정) 투자확대로 조호르,페낭 지역 라인 증설 지속
- 한국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은 현지 생산라인 공급망 진입기회 확대, ART (말레이시아-미국 상호통상협정) 발효후 관세 0% 대상, 1,711품목 중 반도체 부품,장비 포함 가능성

PENANG, MALAYSIA

경제 동향

팜유 재고 6년만의 최고치

- MPOB에 따르면 10월 팜유 재고는 2.46백만톤으로 2019년 이후 최고치
- 식품,화장품용 팜유원료를 수입하는 한국 OEM,가공식품 기업은 원가 절감 기회

철강 수입의존 심화 및 가격 변동 지속

- 24년 말레이시아의 철강 수입은 810만톤(전년+6.5%)으로 중국 37%, 일본 16%, 한국 약 8% 비중 차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36.8% 반덤핑세를 부과중
- 철강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비관세장벽,COA제도 강화로 수입절차 복잡. 한국산 고급 합금강, 특수 강 수요 확대 중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주용내용

- 한국은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년 발효, RCEP)을 통해 기계,가전, 의약품, 가공식품 등 시장개발을 확보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철강 중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음
- 이에 양자 FTA로 인하여 한국은 전체품목 94.8%, 말련은 92.7%를 자유화
-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품목, 한국은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RCEP대비 추가 인하 혹은 철폐예정

1. 자동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자동차시장이지만 자국자동차 기업 점유율이 60%넘고,한국산 자동차 판매는 저조한 편
- 이번 협정으로 전기차 경우, CKD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 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 30%가 50% 감축될 예정

**전기차 점유율: BYD 40%, 테슬라 25%, BMS 9%, 현재 0.7% (24년 기준)*

2. 철강

-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9개 품목(냉연,도금강판)의 관세 5%를 철폐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

3. 화학, 바이오원료 등

-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수입하고 있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 관세 철폐
- 한국은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관세를 철폐하여 원가절감 및 수급 안정 기대

CHONGQING, CHINA

충칭 지점소식

- 안정적인 반도체, 전자제품 등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충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 / CTU / KMG / XIY

충칭시 수출입 물류 현황

1.1 전체 무역 전문 분석

- 2025년 11월, 충칭시의 수출입 물류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외무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8.2% 증가하고 수입은 4.3% 증가했습니다.
- 주요 무역 파트너로는 아세안, 유럽유니언, 미국이 있으며, 기계·전자 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노트북 등 상품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물류 수요는 제조업 PMI 지수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냈지만, 국제 물류 통로 비용 변동성과 지리적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SCM 안정성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 2025년 11월 충칭시 수출입 운송 방식 비중

- 육운 주도적 지위(52%)
- 해운 운송 허브 역할(35%)
- 항공 운송 고부가 가치 속성(13%)

운송방식	화물가치 비중	핵심특징	주요상품
육송	52%	절대적 주도 - 중유럽 열차(渝新欧) 운행량 전년 대비 +25% 증가 - 국경 간 화물차 운행 횟수 +30%	노트북,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일용품
해운	35%	대중상품 주력 - 서부 육해신도로 철해연운량 +20% - 충칭항 처리량 +8%	노트북,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일용품
항공	13%	고가 상품의 선택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패키지 수량 +15% - 국제노선 주당 120편	반도체, 의약품, 긴급 주문, 크리스마스 시즌 소비재

CHONGQING, CHINA

충칭시 수출입 물류 현황

2.1 항공 수출입 운영 현황 및 특징

- **국제 항로 네트워크:**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은 90여 개의 국제 및 지역 항로를 개통했으며, 11월에는 인도 첸나이 직항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고 싱가포르, 방콕 등 동남아시아 노선을 증편해 주간 항공편 수가 120편에 달한다.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항공운송은 전자제품, 의약품 등 고가치 상품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선호되는 선택지로, 11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항공운송 패키지 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으며 주로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흘러갔다.
- **시효성 장점:** 항공운송의 평균 소요시간은 3~5일로 해상운송보다 90% 이상 단축되어 긴급 주문 및 시즌상품(예: 크리스마스 상품)과 같은 계절성 상품의 신속한 배송에 적합합니다.

2.2 해운 수출입 운영 현황

- **서부 육해신통로:** 11월 서부 육해신통로 철해 복합운송 열차 운행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충칭에서 북부만 항구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1.2만 TEU에 달했고, 주요 운송 품목은 자동차 부품, 화학 제품 및 농산물이었다.
- **장강 황금 수로:** 충칭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상하이-충칭 직항 노선"을 통해 상하이항까지의 운송 시간이 10일로 단축되고 물류 비용이 30% 절감되었습니다.
- **대중 상품 운송:** 철광석, 석탄 등 대중 상품의 수입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11월 철광석 수입량은 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주로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했습니다.

2.3 철송/육송 수출입 운영 현황

- **중유럽 열차(渝新欧):** 11월 운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운송 화물 가치는 50억 위안을 초과했고, 주요 상품은 노트북, 자동차 및 의약품이며, 목적지는 독일, 폴란드 및 러시아를 포함합니다.
- **국경 간 도로 운송:** 충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국경 간 도로 정기 화물차 운행량이 30% 증가했으며, 운송 시간이 3일로 단축되었고, 주로 전자제품과 일상용품을 운송합니다.
- **성내 물류 네트워크:** 충칭 고속도로망이 완비되어 있으며, 11월 성내 물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주요 흐름은 청두, 구이양 등 주변 도시로, 운송 상품은 농산물과 공산품이 주를 이룬다.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지점 소식

주요 노선 개요

- KJ 화물기 / OZ 여객기 화물 운송 SPACE 유지
- KJ 대형화물 주3회, OZ DAILY 서비스 제공 가능

편명	출발지	출발 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기종	ETD	RE
KJ0934	CAN	10:00	ICN	14:20	74F	D2,4	화물기
KJ0932	CAN	10:00	ICN	14:20	74F	D5	화물기
OZ0370	CAN	12:25	ICN	17:00	333	DAILY	여객기
OZ0356	CAN	01:15	ICN	05:45	321	DAILY	여객기

항공 물류

성수기 진입... 한·중발 북미·유럽향 운임 강세

시황	본격 성수기 진입으로 운임 상승세 지속, 전자상거래·IT제품 중심 화물 증가
정책	미·중, 펜타닐 관세 10%p 인하 및 상호관세 유예('26.11.10까지) 합의 한·미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15%로 인하(일본·EU 수준)
무역	中-아세안 FTA 개정 체결, 아세안향 수출 증가세 지속
지표	9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YoY +3.2%, 아태지역 +6.9%, 아시아-유럽 +12.4%(IATA)

북미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하여 운임 상승세

- **로스엔젤레스항**: 일반화물 수요 약세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로 운임 소폭 상승
- **시카고항**: 알루미늄코일 물량, 전자담배,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로 운임 상승세 지속
- **뉴욕항**: 블랙프라이데이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로 볼륨화물 증가했으나 중량화물 부족으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 ANC 공항 강설로 운임 추가 상승 전망

유럽

- **프랑크푸르트항**: 성수기 시즌 진입으로 자동차 부품 대량 출하 등 수요 상승세
- **암스테르담항**: 전자상거래 및 일반화물 물량 지속 증가하며 운임 상승세 지속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해운 물류

해운업계, 후티 반군의 공격중단 표명 불구 리스크 지속 판단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및 상선 공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는 여전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JOC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홍해 지역의 '전쟁 위험 지역' 지정 해제를 주저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서 수에즈 운항이 즉시 재개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국제해상보험연합·Xeneta**
후티의 선언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가 지속될 전망
- **EOS·S&P Global**
공격 리스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으며 가자지구 군사작전 재개 시 다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 경고
- **Vespucci Maritime**
휴전이 유지될 경우 '26년 3월 이후가 수에즈 복귀 시점으로 가장 현실적이며, 춘절 이후 물동량 감소기에 해당해 유럽 항만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
- 한편, Maersk는 “충분한 안전 보장 없이는 수에즈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CMA CGM도 일부 소형선의 통항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뿐 대형선 기준 정기 수에즈 운항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북미 운임은 수요 부진으로 하락 지속, 유럽은 GRI 기반 반등세

아시아-북미항로 스팟운임은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지속 하락하며, 최근 북미서안·동안 운임이 각각 \$1,750/FEU, \$2,600/FEU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선사들은 12월 1일부 \$1,000~3,000/FEU 규모의 GRI를 예고하며 시황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GRI의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유럽항로는 선사들의 공급 조절과 GRI 시행에 힘입어 운임이 반등했습니다. 이는 중대형 화주와의 계약 시점을 앞두고 운임 인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선사들은 12월 1일 추가 GRI를 통해 추가 인상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동아프리카 주요 항만 적체 심화 (탄자니아 정치 불안, 케냐, 모잠비크 악천후)

로드스타는 탄자니아 총선 이후 시위와 통행금지 조치로 다르에스살람항이 폐쇄되면서, 인근 케냐 몸바사항으로 선박이 우회해 동아프리카 주요 항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arine Traffic 기준(11월 3일), 다르에스살람항은 16척(48K TEU), 몸바사항은 26척(64K TEU)의 선박이 접안을 대기 중입니다.

특히 몸바사항은 이미 악천후로 인한 지연이 지속된 가운데, 우회 선박까지 집중되며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베이라항 역시 폭우와 강풍으로 2주 이상 지연이 발생 중이며, 이에 CMA CGM은 11월 15일부터 혼잡할증료(PCS) 200달러/TEU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요 해운 분석기관, '26년 內 수에즈 운하 통항 전면 재개 가능성 낮다고 평가

해운 분석기관 Xeneta는 2026년 내 주요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 통항 전면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CMA CGM이 프랑스 해군의 호위 지원을 받아 제한적 통항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체 글로벌 선박 기준으로 홍해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량이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홍해: 2025년 1월 180건 → 10월(1~26일) 131건
- 바브엘만데브 해협: 2025년 1월 223건 → 9월 174건 → 10월(1~26일) 107건

Xeneta는 안보 및 보험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사들이 선불리 수에즈 운항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희망봉 우회 항로가 스팟 운임을 일정 부분 지지하고 있어, 선사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에즈 복귀 유인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TIANJIN, CHINA

천진시 물류동향

항공 물류

- KJ: TSN-ICN 구간 +300KG건 10 SHIPMENTS/MONTH 이상 경우, +300KG건 들에 REFUND 가능
- 연말 가까워서 유럽&미국향 항공 SPACE는 TIGHT 상황이라 진행 시 주의해야 함
- 천진은 물류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AIR&AIR", "TRUCK & FLIGHT" 등의 복합수송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2025년 11월 12일, 텐진빈하이 공항은 32.5톤의 초중량 평파 전향기의 출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수기 검사와 특별 호송을 통해 화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특수 화물 처리 능력을 입증했음

TSN-ICN 구간 2025년 12월 스케줄:

KJ997/KJ998 X WED X ICN/TSN/ICN X B74F
ICN 1600L 1715L TSN 1915L 2200L ICN

KJ997/KJ998 X SAT X ICN/TSN/ICN X B76F
ICN 1855L 2010L TSN 2140L 0025L/1 ICN

KJ977/KJ978 X TUE, THU, FRI, SUN X ICN/TSN/ICN X B73F
ICN 0300L 0415L TSN 0515L 0800L ICN

TIANJIN, CHINA

천진시 물류동향

해상 물류

- 11월 21일, 宝昌轮는 동장 종합 보세구역 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텐진 최초의 원양 냉장 선박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해당 선박은 적재 중량 6400톤, 냉장 온도 -35°C에 달하며, 텐진의 원양 콜드 체인 수송 분야 공백을 메웠음
- 텐진항에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신규 선박 노선 2개가 추가되었음. 하나는 EMC, YML, WANHAI 세 개의 선사가 공동 운영하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연결함. 다른 하나는 MSC가 단독 운영하는 Sambar 노선으로, 베트남과 태국에 직행하여 운송 시간을 약 7~10일 단축함. 두 신규 노선은 모두 주간 운항 모드를 채택하며, 터미널은 새로운 운영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작업 효율을 향상시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출발 일정과 선적 공간을 보장 가능
- 시장 동향과 가격: 12월은 전통적인 성수기의 마지막 시기로, 화주들이 서양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대비한 화물의 출고는 대부분 완료 됩니다. 하지만 설날 전의 소량의 출고 물량이 수요를 지지할 것 입니다. 시장 전체 운임은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사는 성수기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천진항은 남미 서안 및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직항 서비스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로의 운임과 선적 공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
- 핵심 과제: 가장 큰 위험은 스페이트 부족으로 인한 화물 반출 지연과 선박 스케줄 지연입니다. 연말 물량 증가로 인해 항만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Cape Town port 경우 detention 추가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사전 계획: 가능할 경우 미리 부킹 진행해야 하며 , 긴급 화물의 경우, 포워드와 ' 모든 위험 조건 ' 보험 체결을 고려
- 강점 항로 활용: 화물이 남미 또는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경우, 천진항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면 일반적으로 더 짧은 운송 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차기 연도 계획 수립: 12월은 다음 해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협상하는 중요한 시기
- 장기 계약 가격을 확정하는 것은 향후 시장 변동성 속에서 비용 통제에 도움이 됨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 항공 운송: 성수기 압력 가시화, 사전 조치 권장

12월 아시아 출발 항공 운송 시장은 화주에게 매우 불리한 '판매자 시장'이며, 출하 계획이 있다면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주요 노선 운송 능력 부족: 아시아에서 북미, 유럽 노선의 스페이스 매우 부족하며, 주요 공항의 혼잡으로 화물 처리 시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화물이 주력: '11.11 광군제' 이후 연말 쇼핑 시즌이 전자상거래 화물량을 주도하며 11월 하순 및 12월 항공 화물 공간을 추가로 점유할 것입니다.

대응 전략:

- 사전 예약: 최소 4~5일 전에 스페이스 확보 필요하고, 대형 화물의 경우 더 일찍 출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가치 화물 주목: 항공사는 의약품, AI 장비 등 고수익 화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때문에 해당 품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선박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상 운송: 운임 인상 실제 적용 여부 주의, 신중한 전망 필요

12월 초, 여러 선사가 동남아 및 유럽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을 발표했으나 실제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 가격 동향 불확실: MSC 등 선사가 큰 폭의 인상을 발표했지만, 업계 최대사인 Maersk의 실제 선적 가격은 발표가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가 높은 인상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 운임은 발표가 기준으로 인하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최종 견적 확인: 선적 예약 시, 화주 또는 선사에 최신 실제 견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발표가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십시오.
- 조기 예약: 운임 인상이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인기 있는 일부 항로는 '선적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일찍 예약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중-유럽행 열차: 새로운 '시간표' 노선 개통, 소요 시간 단축

중국-유럽 행 열차의 최근 주요 발전은 4차 '전 구간 시간표 열차'를 발표한 것으로, 발송인에게 더 안정적인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 전 구간 시간표 열차란: 여객 열차처럼 고정된 열차 번호, 배차, 전 구간 시간표를 운영하는 화물 열차이며,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의 운송 시간을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장점: 이러한 열차는 우선 편성, 우선 운행 등의 혜택을 통해 전 구간 운송 시간이 일반 열차보다 약 30%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개통된 지난-헝가리 부다페스트 노선은 전 구간 소요 시간이 약 18일에 불과합니다.

대응 전략:

- 신규 노선 평가: 새로 개통된 전 구간 시간표 노선(정저우-함부르크, 시안-프라하, 지난-부다페스트 등)을 주목하고, 기존 운송 방안과 비교하여 안정성과 가성비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SHENZHEN, CHINA

항공 서비스

Route : SZX → ICN

AIRLINE	FLIGHT	ETD	ETA	TYPE	
CZ	CZ3089	8:40	13:40	A320-251N	passenger plane
ZH	ZH633	9:05	13:50	737-87L	
	ZH631	11:05	15:40	A320-251N	
KE	KE828	12:45	16:40	A330-323	
OZ	OZ372	13:50	18:05	A330-323	
UPS	5X0196	03:31	08:06	B767F	cargo aircraft

해상 서비스

Route : SHENZHEN → BUSAN/INCHEON

POL	POD	Carrier	SKDL
SHEKOU	BUSAN	KMTC	Week 7~10 Voyage
		HEUNG-A	Week 4~5Voyage
		PAN OCEAN	Week 2~3Voyage
		CK LINE	Week 2Voyage
		SITC	Week 3Voyage

POL	POD	Carrier	SKDL per Week
SHEKOU	INCHEON	KMTC	Week 6~7 Voyage
		HEUNG-A	Week 3 Voyage
		PAN OCEAN	Week 3 Voyage
		CK LINE	Week 3 Voyage
		SITC	Week 2Voyage

SHENZHEN, CHINA

보세구 서비스

Route: 해외 → 중국 보세구 → 중국 고객사 / 해외 고객사

- 보세 운송 및 Storage
- 명의 대행 수출/입 통관
- C/L 라벨링 작업, Repacking 작업
- Trucking, Loading/Unloading



QINGDAO, CHINA

물류 동향

Qingdao Port 신규 동남아시아 항로 (CIM,SAMBAR)

- Qingdao항이 최근 “Changsheng”호와 “MSC DIEGO”호의 접안을 통해 CIMG항로와 SAMBAR항로 등 두개의 신규 동남아시아 항로를 정식 개통 했습니다.
- 이로써 화북지역과 동남아니아간 무역왕래에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물류 루트를 마련되었습니다.

1. CIM 항로

- 운영사: Evergreen, Yangming, Weihai Line 선사 공동 운영
- 운영 방식: 주 1 회 정기 항공(5 척 선박 투입)
- 주요 경유 항구: 대련, 천진신강, 청도, Ningbo, 수라바야, 자카르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 의의: 청다오항을 중요한 중추 허브로 활용, 기업에 동남아시아 직행 옵션 추가 제공

2. SAMBAR 항로

- 운영사: MSC
- 주요 연결 지역: 중국 북부 - 동남아시아 주요 항구
- 운영 방식: 주 1 회 정기 항공(6 척 선박 투입 예정)
- 첫 배 접안 정보:
- VSL: 선장 259.6m, 화물 적재 용량 56,000 톤, 최대적재 능력 4,056 TEU

물류 시장 동향

10월 중국 민항 국제노선 여객 및 화물 수송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11월 25일 민항국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국 민항 국제노선 여객 수송량과 화물 우편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0% 이상 증가했으며, 화물 우편 수송량은 사상 처음으로 월간 9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10월 중국 민항의 총 수송 회전량은 146.0억 톤킬로미터, 여객 수송량은 6783만 5천 명, 화물 우편 수송량은 91만 7천 톤으로 각각 10.8%, 5.8%, 13.4% 증가했습니다.

1~10월 누적 총 수송 회전량은 1366.3억 톤킬로미터(전년 대비 10.3% 증가), 여객 수송량은 6.5억 명(5.3% 증가), 화물 우편 수송량은 831만 2천 톤(13.9%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영업팀

sales.kr@maxlogis.com

김희명 팀장	hmkim@maxlogis.com	010-9281-0109	070-5096-9389
장명수 수석	simon.jang@maxlogis.com	010-4437-5175	070-5096-9387
이진섭 매니저	david.lee@maxlogis.com	010-8969-7433	070-5096-9472

부산 영업팀

bus@maxlogis.com

최승린 지점장	steve.choi@maxlogis.com	010-8619-5761	070-5096-0585
박지선 매니저	amy.park@maxlogis.com	010-2825-2252	070-5096-0582

